

“유토피아”의 한국적 개념 형성에 대한 탐색적 고찰*

김 종 수**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한국에서 ‘유토피아’의 개념은 20세기 초반 형성되었다. 유토피아가 문헌에 등장하기 전 『해저여행기담』이나 『철세계』와 같은 근대 초기 번안 소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없지만 좋은’ 세계는 과학을 이용해 찾아낼 수 있는 곳, 과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이었다. 여기에는 과학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조선 지식인들의 근대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가 담겨 있었다.

진보적 역사관에 기반한 사회주의 운동이 활개를 치던 1920년대 조선의 독서 대중들에게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서구 유럽의 사회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합목적적 과학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토피아가 동원되면서 유토피아는 공상적 의미의 이상세계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합목적적인 과학으로 실현된 이상세계라면 유토피아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실행할 수는 없으나 공상되었던 공산주의의 과거 사례로 규정된 것이다.

한편 『개벽』이 사회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유토피아의 사회개혁적 맥락에 집중하여 논의하는 것과 다르게 『동광』은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해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급진론보다는 과학과 예술의 진보, 개인의 개성과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진적 개혁안에 바탕을 둔 근대 문명을 유토피아로 상징하였다. 또한 같은 시기에 과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관심은 과학으로 상상하는 미래 세계를 주제로 한 과학소설과 희곡 작품으로도 확장되었다. 웰즈의 『팔십만년 후의 사회』나 박영희가 번역한 『인조노동자』 같은 작품은 바로 유토피아를 꿈꾸는 미래의 과학세계가 사실은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8929).

** 경희대학교 한국어학과

인류가 겪게 될 인간 멸망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임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디스토피아적 비전의 원형들은 이상향을 향한 비전의 반대급부로 형성된 것으로서 유토피아의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 유토피아, 과학, 박영희, 사회주의, H. G. 웰즈

1. 서론

주지하다시피 토마스 모어가 1516년에 발표한 책 제목인 유토피아(Utopia)는 ‘이 세상에 없는 곳(Outopia)’과 ‘좋은 곳(Eutopia)’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실재하지 않는 이상적 공간’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유토피아는 지난 5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추동한 핵심 개념이었다. 특히 유럽에서 유토피아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다. 16세기에 토마스 모어가 상상 속에서 구현했던 평등한 세상은 토마스 뮌처와 독일 농노전쟁, 그리고 천년왕국운동으로 이어지고 20세기 사회주의 혁명으로 실현되었다.¹⁾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유토피아’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낙원’이나 ‘이상향’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다. 낙원이나 이상향은 인간의 행복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이해되었는데, 예를 들어 『구운몽』과 같은 소설에 등장하는 선계(仙界)와 선경(仙境)은 착한 사람만이 살 수 있고 생로병사도 없는 완벽한 공간으로 제시된다. 또 『홍길동전』에서 묘사되는 울도국은 지배계층의 부조리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활빈당의 의지로 건설되는 이상세계이다. 도교의 신선사상의 영향을 받은 무릉도원형 ‘낙원’이나 유교의 대동사상(大同思想)에 입각한 대동사회형 ‘이상향’은 한국 고전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토피아의 모습으로 간주되어 왔다. 무릉도원형이 개인적이고

1)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자음과모음, 2011, 82-104쪽 참조.

소극적인 차원의 유토피아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대동사회형은 집단적이고 적극적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토피아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²⁾

그런데 한국에서 이해되었던 ‘이상향’과 ‘낙원’의 의미가 유럽에서 전래된 ‘유토피아’라는 개념과 등치되어 이해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광수가 ‘문학’의 개념을 ‘literature’의 역어로 규정하며 조선의 신문학을 주창했던 것처럼 이상향이나 낙원은 유토피아의 역어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상향이나 낙원이 동아시아의 중세 문헌에서 구현한 의미 맥락과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구축해온 역사적인 맥락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미상 절연은 새로운 인식틀로서의 근대 경험에서 발생한다. 한국에서 이상향이나 낙원이 탈역사적인 의미로 이해된다면 유토피아는 근대 형성기에 유입된 외래어가 가지는 근대의식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영어 기반 외래어가 모더니티와 함께 보편어의 첨병으로 근대의 식과 개념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³⁾하였음을 고려한다면 ‘유토피아’라는 언어가 수용되었던 역사적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19세기 말 개항을 겪으며 단기간에 서구의 관념과 사유 방식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인식의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개항 후 바로 이어진 일제 식민지의 폭력적인 강권과 근대화의 시대적 요청은 기존의 삶의 방식을 해체하고 사회 제도와 인식틀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인식 지평을 형성하는 국가, 주권, 개인, 사회 등 주요 개념들도 대체로 서구 모델에 입각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서구 모델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현재의 관점이 주도하는 한 한국의 근대 개념 형성 과정은 단순한 서양 개념의 도입사로 귀결되기 쉽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고 근대 개념의 형성과정을 새롭게 고찰하려면, 근대 형성기를 당대적 의식과 사고 틀 안에서 다시 읽어내는 시각이 필요하다.⁴⁾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토피아’라는 근대 개념을 근대 형성기 한국의 사

2) 이종은 외,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28, 1996. 118-125쪽 참조.

3) 이상혁, 「근대 한국(조선)의 서양 외래어 유입과 그 역사적 맥락」, 『언어와 정보 사회』 23, 2014, 181쪽.

4) 김지영, 『매혹의 근대, 일상의 모험』, 돌베개, 2016, 35-36쪽 참조.

고 틀과 당대적 의식 속에서 규정하기 위해 개념사의 방법론⁵⁾을 활용한다. 어떤 이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어휘를 어떤 의도로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중시하는 개념사 연구에서는 특정한 정치·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사용과 의미에 관심을 둔다.⁶⁾ 특히 서구와는 다르게 진행된 자국의 근대 경험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려는 비서구 세계에서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어의 번역과 번역을 통한 무수한 신조어의 출현이라는 개념의 혁명, 그에 따른 지적 아노미 현상이 수반되었기 때문”⁷⁾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모더니티를 지향하는 기표로서의 ‘유토피아’가 형성하고 있는 개념을 재구성해봄으로써 근대 형성기에 당시 한국인들이 ‘유토피아’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망과 그 속에 담긴 그들의 경험과 기대를 탐색하도록 한다.

2. 근대에 대한 희망적 기대로서의 신세계

일제 강점이 정점에 달하였던 1930년대 후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했던 김구의 한국국민당에서 발행한 『한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타민족 또는 타국가의 建設圖를 그대로 삼천리에 실행하려는 것은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더욱이 다른 민

5) 개념사는 언어와 역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탐구하는 역사미론의 한 분야이다. 전통적 역사에서 언어는 단지 과거가 실제로 어떠했는지 파악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역사미론에 의하면 오히려 언어가 역사적 실재를 구성한다. 언어와 텍스트에 의해 역사적 실재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연구하면서 언어 현상 중 특히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역사미론으로서의 개념사이다.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d Koselleck)이 체계화한 개념사는 서구와 미국을 모델로 ‘좋은 근대’, ‘발전’을 강조하는 근대화론을 비판하고 개념 연구를 통해 근대성의 숨겨진 이면을 역사적으로 성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개념사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하였다.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11; 이경구 외,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2012.;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15.

6) 나인호, 앞의 책, 3 4-40쪽 참조

7) 나인호, 앞의 책, 21쪽.

족이나 국가의 건설계획인 맑스주의나 아나키즘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밀줄 인용자)⁸⁾

일제에 주권을 빼앗겨 이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조선의 청년들을 독려하는 임시정부의 기관지는 외국에서 실현된 국가 건설의 계획이 한국에서는 적용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고유문화를 중심으로 외세를 배격하고 새로운 국가를 창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 한국국민당의 강령은 서구에서 유입한 국가 비전, 예를 들어 사회주의와 같은 사상은 허황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세계는 유토피아라고 단정한다. 이때 유토피아는 허황된 또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치적 세계의 대명사이다. 비록 해외이기는 하지만 1930년대 후반 일제 강점기 정치 공간에서 쓰인 유토피아의 의미는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허황된 세계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던 것이다.

위의 예처럼 한국어로 유토피아가 문헌에서 직접 쓰이기 전인 1900년대에,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뜻하는 단어와 그 공간에 대한 묘사가 서구 번안소설에서 발견된다. 서구 문물의 도입을 통해 부국강병을 실현하고자 한 당시 조선 지식인들이 서구 소설을 번안하며 그곳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세계를 의미하던 말에는 ‘無何有鄉’⁹⁾, ‘理想國’¹⁰⁾이 있다.

①“네모- 日 此等 書冊은 余가 塵世를 別하고 無何有鄉에 入을 際에 携來한 바 라.”(밀줄 인용자)¹¹⁾

②“余 | 佛國革命史를 接讀하니 一千七百八十九年에 其 國民이 自由 平等 博愛의 義旗를 高擧하고 純正 圓滿한 理想國을 唱設했스되”(밀줄 인용자)¹²⁾

8) 작자 미상, 「우리 운동은 왜 진전되지 않는가」, 『한청』 제3호, 1935, 38쪽.

9)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지닌 ‘無何有鄉’은 『莊子』의 <逍遙遊> 중 “無何有之鄉”에서 나온 말로서 20세기 초 조선의 번안소설에서 자주 등장한다.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1907)에서도 “無何有鄉”이 등장하는데 20세기 초 일본에서도 “無何有鄉(むかうきょう)”이 빈번하게 쓰였다.

10) “理想國”은 중국어로 “lǐxiǎngguó”로 20세기 초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11) 朴容熙, 『海底旅行奇譚』, 『태극학보』 14호, 1907, 55쪽.

위 인용문은 일본 유학생 박용희가 번역한 『海底旅行奇譚』의 일부분이다. ①은 바다를 여행하던 ‘네모’ 선장이 많은 과학서적을 가지고 속세를 떠나 누구나가 그리워하며 가보고 싶은 곳을 도달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②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건설된 근대 국가로서의 프랑스가 이상국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해저여행기담』이 프랑스 소설가 쥘 베른의 『해저 2만리 Vingt Mile Lieues Sous Les Mers』를 번안한 소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①에 나타난 “無何有郷”은 19세기 후반 미지의 해저 세계에 대한 서구인의 동경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②의 “理想國”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한 프랑스 출신 작가의 국가적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태극학보』가 1906년 8월 동경에서 창간된 제일유학생 학술잡지로서 국가와 민족 현실에 대한 정치 철학을 기조로 삼으면서 신교육과 새로운 과학지식의 보국에 힘쓴 잡지¹³⁾였음을 고려할 때 『해저여행기담』에는 부국강병을 실현한 서구를 바라보는 근대초 조선 지식인의 시각¹⁴⁾이 담겨 있다. 당시 쥘 베른에 대한 관심은 조선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쥘 베른의 작품들이 번역되었는데, 여기에는 쥘 베른의 소설에 깔려 있는 과학주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이 근대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⁵⁾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조선인 유학생들이 쥘 베른의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와 유사하여 쥘 베른의 작품을 통해 자신들의 계몽적 목적을 달성하고 서세동점의 위태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적 독립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이 조선 유학생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12) 朴容熙, 「海底旅行奇譚」, 『태극학보』 21호, 1908. 50쪽.

13) 『태극학보』 영인본(아세아문화사, 1978) 제1권에 실린 백순재의 해제 참조.

14) 여기에는 서구에 대한 동경 의식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의 정치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연재 2회분에서는 주인공 아로닉스 박사가 한국과 일본, 청나라의 역사를 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원작에는 없는 것이지만 번역자가 독자들에게 국가와 민족이 처한 현실을 깨닫게 하여 독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식, 「서양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 과정에 대하여」,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63-64쪽 참조.

15) 김종욱, 「쥘베른 소설의 한국 수용과정 연구」, 『한국문학논총』 49집, 2008, 59쪽 참조.

『해저여행기담』같은 변안소설에 등장하는 “無何有鄉”이나 “理想國”은 근대 전환기 조선 사회의 국가적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담고 있는 것으로 과거 조선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독자들이 접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이 세상에는 없으나 좋은 곳’이라는 유토피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저여행기담』과 같은 시기에 발표된 『철세계』에는 근대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을 통한 신세계 건설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주목을 요한다.

1908년 11월에 회동서관에서 발행한 『철세계』는 쥘 베른의 『인도 왕비의 유산(Les cinq cents millions de la Begum)』을 이해초가 번안한 것이다. 『철세계』는 갑작스럽게 유산으로 받게 된 많은 돈을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게 한다는 작가의 과학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을 통한 부국강병을 모색한 근대 초기 조선 지식인들의 이상에 부합한 소설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프랑스 의학사 좌선과 독일 화학사 인비라는 대비적인 인물의 지향이 대조되면서 과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신세계의 모습이 매우 상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의학사 좌선은 물려받은 많은 유산을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장수촌을 건립하는 데 사용하는 반면에, 독일 화학사 인비는 장수촌을 파괴하는 연철촌을 건립하는 데 사용한다. 이 중에서 프랑스 의학사 좌선이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과학을 활용하여 건설하려는 장수촌은 생명 연장이라는 인간의 소망을 근대 과학을 통해 실현해 가는 현장으로 묘사된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인간의 소망을 실현한 장수촌은 “위싱 데일 긴요하다”는 원칙을 따른 곳이다. 사람들이 거처하는 공간을 넓게 하여 공기를 잘 통하게 하고 일광을 가리지 않으며 “신발명하야 구은 벽돌로” 지은 집에서는 빗물이 잘 통하게 되어 더러운 기운과 나쁜 냄새가 머물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벌레와 곰팡이가 전염하는 독기를 없앤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일 신체 운동과 휴식을 균일하게 하고 음식 위생을 각별히 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게 건설된 장수촌 사람들의 일상은 청결과 위생으로 조직되어 통제 관리됨으로써 생명을 연장한 신세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장수촌의 호구가, 이상히늘어, 초년에는, 륝빅 호가, 삼년동안에, 구천호가 되고, 지방은, 십여만 인구가 되며 촌중전토와, 가옥의 세납은, 극히 험하여, 촌주가 차지하고, 촌중의 범빅 민스 와형 스는, 위원회로, 걸쳐 하고, 촌민위 싹총회는 좌선이, 주장 하되, 독단 하 지안코 각국의 학스 와루 츠왕복 하야, 십분심신 하더라 신세계와, 구세계와, 동서양에, 평균죽는 사람이, 매년에 빅의 셋씩 되니, 지구히적은 슈효라, 장수촌은, 설시 후 이후로, 다섯히에, 평균 하면, 매년에 불과 빅의 일분오리씩 되니, 이는 오히려, 초년에 빅스가 미비하고, 질병이 류형으로, 이 슈효가 되었고, 만일, 작년의 조사함을 보면, 빅의 일분이 이리오호가, 되니, 이 일분이 이리오호는, 조상의 류전 하는 병으로, 물막아 마그려하고, 불시여역으로, 죽은 자는 도모지 업스니, 이럼으로, 장수촌 사람들이, 자랑 하되, 삼십년후에는 장수촌에서 병드려 죽을, 사람은 업고, 빅세나 이 빅세를 살다가, 절로 늙어, 쫓나 무물너 죽듯 하다 하더라.¹⁶⁾

‘위생’이라는 근대 과학의 힘으로 구축된 신세계는 인구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 정책이 민주적 의사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 결과 장수촌 사람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병이 아니면 갑자기 죽는 사람이 없고 백세나 이백세를 살게 되는, ‘이 세상에는 없는 좋은’ 세계를 건설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수촌의 삶은 독자들에게 과학적 위생을 통해 실현된 꿈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¹⁷⁾ 장수촌에는 근대 위생학적 실천이 당대 근대 국가들이 추구했던 건강한 자국민의 인구 증가를 실현한 장수촌을 묘사함으로써 조선 독자들은 근대 과학이 실현한 생명 연장의 신세계를 체험하게 되었다. 이해조는 『철세계』 번안을 통해 근대적 위생 관리가 인구증가와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¹⁸⁾

『해저여행기담』이나 『철세계』와 같은 근대초기 번안 소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없지만 좋은’ 세계는 서구 제국의 시선으로 묘사된 신비한 곳이거나 과학을 바탕으로 생명 연장을 실현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선 사람들이 과거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신세계이다. 신기하고 새로운 신

16) 이해조, 『철세계』, 회동서관, 1908, 65-66쪽.

17) 김교봉, 「『철세계』의 과학소설적 성격」,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126-127쪽.

18) 장노현, 「인종과 위생-〈철세계〉의 계몽의 논리에 대한 재고」, 『국제어문』 58, 2013, 552쪽.

세계는 과학의 힘으로 구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근대의 신세계는 모두 과학을 이용해 찾아낼 수 있는 곳, 과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이다. 과학이야말로 부국강병의 원동력이라는 근대 초기 조선 지식인들의 신념 속에서 과학으로 구축해내는 세계가 이상세계로 재현되는데, 과학에 대한 기대는 곧 과학으로 실현해 낼 수 있는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해저여행기담』이나 『철세계』와 같은 변안소설은 프랑스처럼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해낸 실재하는 나라를 이상국으로 이해하거나 과학을 토대로 구축해낸 신세계를 재현함으로써 근대에 대한 희망적 기대를 당시 조선에 유포하였던 것이다.

3. 과학적 사회주의의 전사(前史)로서 유토피아

조선 지식인들이 과학으로 근대적 이상국가를 실현하기를 소망하며 꿈꾸었던 신세계에의 열망이 드러났던 1900-10년대는 유럽에서 제국주의 세력들이 전쟁에 돌입한 시기였다. 주지하듯이 제 1차 세계대전은 서구 근대문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1차 세계 대전의 종전 후 인류보편적 열망을 반영한 이상주의가 팽배한다.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국제연맹의 결성, 1917년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체제의 등장, 유럽에서의 활발한 노동 운동 등이 전개되며 세계 질서의 재편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쳐서 일본을 중심으로 개조론이 유행하여 개조 담론은 전후 세계 체제 재편과 관련된 발전적 사회개조를 지향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시기 조선 지식인들도 개조론을 바탕으로 민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¹⁹⁾

이와 같은 1920년대 개조론이 유행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소개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당시 문화가 박영희는 유토피아에 대한 소개와 유토피아 담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때는 조선 사회주의 문예운동 과정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박영희의 사

19) 김형국, 「1919-1921년 한국 지식인들의 개조론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하여」, 『충남사학』 11, 1999, 121쪽 참조.

상적 전환기였다. 유토피아 담론이 활발했던 이 시기에 박영희는 신경향파라고 규정한 프로젝트 문인군에 합류하며 『개벽』의 편집인으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때라는 점²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사회주의 문예이론이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던 때와 함께 유토피아 담론이 조선 대중들에게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현실적인 실현을 목표로 박영희가 소개한 유토피아의 개념은 과학의 진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그 실현이 이끌어낼 노동 해방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대타적인 개념으로 자리매김되기 때문이다.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도 이 시기에 처음으로 조명된다.

1516년에 토마스 모어가 쓴 저서인 『유토피아』가 조선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26년이였다.²¹⁾ 16세기 영국에서 판사의 아들로 태어나 “론돈 商業家들의 변호사가 되었”던 토마스 모어가 “最良한 國家制度和 「유토피아」 島에 대한 金書”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저간의 사정을 먼저 소개한다. “現代國家는 皆 富權者의 陰謀窟이다. (...중략...) 만약 金錢이란 것이 업서진다면 이도 다 업술 것이다”(69)라거나 “누구던지 各物을 자기 원대로 가질 수 있는 줄 알므로 所用以上되게 物품을 가지지 안는”(71) 유토피아 사람들의 삶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에서 사적 소유를 부정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토마스 모어가 지은 “유토피아의 막대한 의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共產主義의 全國的 生産組織을 主唱한 것이다. 生産材料가 사회의 소유가 됨으로써 人이 人을 搾取함과 불평등과 貧富差別의 弊가 업서지는 유일한 방법을 연구”(71) 하였다는 주장은 500년 전 토마스 모어가 20세기 사회주의 혁명과 사상적 동귀임을 제시함으로써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발생한 이상주의 개조론 중 하나로서의 사회주의가 역사적으로 정당한 실천임을 명시한다. 특히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레닌의 논의를 떠오르게 한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가 모든 사적 소유를 공적 소유로 전환하는 시기를

20) 허혜정, 「논쟁적 대화: H. G. 웰즈의 근대유토피아론과 조선 사회주의 문예 운동」, 『비평문학』 63, 2017, 230쪽 참고.

21) 고레프 저, 쇠피 역, 「토마스 모르부터 레닌까지」, 『개벽』 66, 1926, 68-71쪽. 요 약본으로 잡지에 소개되었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의 첫 한국어 완역본은 王學洙가 번역하여 耕智社에서 1959년에야 출간되었다.

사회주의라고 불렀고 코뮤니즘이 정착되고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갖는 코뮤니스트 사회의 고급 단계가 시작 되면 그때는 국가의 물리력이 필요 없어진다고 주장하였다.²²⁾ 맑스와 엥겔스, 레닌으로 이어지는 근대 코뮤니즘 운동이 유토피아적인 것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사적 소유의 공유화와 능력에 따른 노동과 필요에 따른 분배가 토마스 모어의 주장과 상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모르는 新時代社會主義의 始祖임이 확실하다”(71)는 주장에 이어 “英國大콰뮤니스트의 主義를 맑스와 엥겔스가 완성한 科學的 社會主義 그대로 받들어 가지고 나간다”(71)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토마스 모어를 20세기 완성된 사회주의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한다. 진보적 역사관에 기반한 사회주의 운동사가 활개를 치던 당시 조선의 독서 대중들에게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서구 유럽의 사회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내용이 1926년 『개벽』에 소개되면서 알려지기 전에 ‘유토피아’라는 외래어는 1924년 박영희가 편집한 「重要術語辭典」에 등장한다. “『開闢』創刊 四周年 記念號 附錄”에 실렸던 이 사전은 당시 문인과 지식인들의 글 속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문학부’, ‘사상부’로 나눠 풀이한 책이다. 여기에서 ‘유토피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유토피아(Utopia) 「文」. 理想郷, 空想世界等の 意味이니 英國政治家 도마스 모어(Thomas More, 1478-1535)가 一千五百十六年에 著作한 小説의 名.”²³⁾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유토피아는 사회주의의 “시조”라고 주장한 1926년의 기록과는 다르게 박영희가 편집한 「중요술어사전」에서 나온 “유토피아”는 문학용어이면서 한국에서 전래해 온 ‘이상향’의 뜻임 명시한다. 여기에 “공상 세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 덧붙여지고 500년 전 영국인이 쓴 소설임을 규정하고 있다. 1924년의 「중요술어사전」이 나온 10년 후 서양의 외래어를 기록한 『新語辭典』에는 아래와 같이 정

22)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자음과 모음, 2011, 102쪽 참조.

23) 작자 미상, 「중요술어사전」, 『개벽』 49, 1924, 25쪽.

리하였다.

“유토피안(Utopian)(Utopia)

理想郷을 찾는 空想家, 英國文學者 토-마스 무어가 當時社會에 不滿을 가지고 自己의理想郷을文學的으로 著述한書籍의名稱.”²⁴⁾

「중요술어사전」에서는 『유토피아』를 정치가인 토마스 모어가 지은 소설의 제목으로 기록하였고, 『신어사전』에서는 “유토피안”과 “유토피아”를 한 항목에서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상적인 곳을 찾아가는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유토피안”을 규정하고,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당시 사회에 만족하지 못해 이상향을 기록한 문학적 서적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유토피아를 설명하는 단어로서 “이상향”, “공상”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유토피아의 어원인 ‘Outopia’를 ‘공상(空想)’으로, ‘Eutopia’를 ‘이상향(理想郷)’으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외래어 사전을 통해 제시되는 새로운 어휘의 사전 등재는 전문적 지식의 대중화를 뜻하며 당대에 등재된 어휘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본다면 ‘유토피아’라는 어휘가 적어도 1924년을 전후로 하여 지식인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쓰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920년대 조선의 문인과 지식인 사회에서 유토피아가 이상향, 공상으로 이해되고 문학세계에서 쓰이는 용어로 사전에 규정되면서 유토피안은 당시 이성과 합리의 영역으로 대표되는 과학과는 대비되는 의미가 부각된다. 특히 현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합목적적 과학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토피아가 동원되면서 유토피안은 공상적 의미의 이상세계라는 점이 강조된다. 박영희가 역시 편한 <重要術語辭典> 『開闢』第五年 八月號 附錄에 수록한 표제어 공산주의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共產主義에는 空想的과 理論的이 있다. 古來學者들의 主張하던 것은 空想的이 만었다. 그런 故로 甚한 境遇에는 到底히 實行할 수 업음을 알면 서도, 時代의 缺陷을 指摘하며, 改善하기 위해서 一種의 理想으로 共產主

24) 청년조선사 편, 『신어사전』, 청조사, 1934, 68-69쪽.

義를 主張한 일이 있었다. 푸라톤의 『共和國』 토마스 모어의 『理想郷 유토피아』와 가튼 것이 卽 空想的이다.”(밑줄 인용자)²⁵⁾

“말하면 그들의 理想은 共產의 基礎 위에서 共同團體를 建設하려고 하나 그 實行方法으로 強制的 手段은, 極力 排斥하는 것이다. 이와 가튼 主張을 또한 「유토피아니즘」이라고 한다. 즉 그들은 무슨 活社會의 原動力에 接觸하지 않는 까닭이고, 또한 그들은 社會의 過去와 現在에 對해서 政黨한 判斷이 업시, 다만 將來에 對해서 空漠한 理想을 가진 까닭이다. 또한 그들은, 現在의 社會는 從來부터 改造하려는 思想과 計劃이 업섯든 까닭에 이와 가티 慘狀을 일으켰다 한다. 또한 그들의 將來에 對한 理想도 徹頭 徹尾, 理智의 이였스니, 信仰또는 感情을 仗구지 안었다. 이로 하여금, 그 理想은 「유토피아」라고 부르며 또한 그들 自身도 「유토피아」의 사람들이 라고 한다.”(밑줄 인용자)²⁶⁾

위 예문들에서 공상적 공산주의의 예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는 실행할 수는 없으나 상상할 수 있었던 공산주의로서 유토피아를 규정하고 있다. 역사의 미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한 것을 고려한다면 유토피아는 변증법적 유물론의 함목적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현실적 갈등과 힘의 투쟁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이상만을 고집하는 이상주의자로 유토피아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유토피아의 이상태로서 현실 사회주의를 상정하게 되는 진보적 세계관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이같은 관점은 사회주의가 역사와 과학의 진보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임을 제시하기 위해 유토피아가 대타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즉 현실 사회주의가 함목적적인 과학으로 실현된 이상세계라면 유토피아는 이러한 과학적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실행할 수는 없으나 공상되었던 공산주의의 과거 사례로 규정된 것이다.

25) 「重要術語辭典」, 『開闢』 第五年 八月號 附錄, 1925, 12쪽.

26) 「重要術語辭典」, 『開闢』 第五年 八月號 附錄, 1925, 39-40쪽.

4. 과학으로 실현가능한 유토피아와 노동의 문제

유토피아를 사전적으로 정의하고 유토피아의 어원인 토마스 모어의 작품 『유토피아』를 소개하며 유토피아의 공상적 성격을 통해 사회주의의 현실성과 과학성을 부각시키는 일련의 내용은 1924-26년 사이에 잡지 『개벽』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 『동광』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토피아 담론을 소개하였다. 『개벽』이 사회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유토피아의 사회개혁적 맥락에 집중하여 논의하는 것과 다르게 『동광』에서 제시되는 유토피아는 서구의 근대 문명을 구현한 과학과 합리에 기반한 이상적 사회를 지칭하는 의미로 한정된다. 특히 『동광』에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극복하면서 세계적으로 실현가능한 유토피아론을 전개한 H. G. 웰즈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이루어진다.

H. G. 웰즈의 대표 저작인 『근대유토피아론』을 요약한 「근대적 이상 사회, 유토피아 談」²⁷⁾은 당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는 “따윈이 진화론을 발견한 금일의 유토피아”로 한정된다. 이것은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개성이라는 것에 상당한 가치를 인정하”는 유토피아이며 이때 유토피아는 모어의 유토피아처럼 폐쇄된 섬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를 무대로” 한다. 그러하기에 세계가 공통으로 쓸 언어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과학적이요 수학 공식적으로 정확한 언어”, “근대 이상사회에서는 개성을 존중하는 관계상 인위 통일보다는 각국어의 종합적 자연어”를 통해 의사를 통할 것을 주장한다. 웰즈는 근대 이상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개인적 자유관념”이며 “사유(私有)는 반드시 금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재산 공유는 개성을 몰각한 점이 많”아 “근대인이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몇몇 가지의 사유를 허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근대적 이상사회에서는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을 악용한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지 돈 그것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금일의 유토피아에서는 “진보된 과학으로 증진하는 사람의 물질적 생산력을 어떻게 하면 전인류의 복지

27) H. G. WELLS 저, 洪生 역, 『동광』 2호, 1926, 12-13쪽, 59-62쪽.

를 위하여 일치조화하게 할가”가 근본 문제이고 “자유경쟁을 허하는 동시에 경쟁을 감시하여 국민을 비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진화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웰즈의 유토피아는 화폐제도를 부정하고 사적 소유의 철폐를 주장하던 모어의 유토피아와 달리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인민에게 의식을 주고 질서를 주고 건강을 줄 뿐 아니라 각 개인의 개성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또한 禁酒와 경쟁, 무능력자, 나태, 실업자, 호적, 남녀문제와 같은 병폐에 대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당대에 많은 과학소설과 예언적 저서로 유명했기에 과학자이자 문학자로 인식되던 웰스의 유토피아는 모어의 유토피아와 달리 실현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웰스의 유토피아상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화된 삶의 영역 안에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유 경쟁을 미화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이 유토피아의 기획에 있어서 “과학은 사람의 노예로 기능”하고 있다. 웰스는 인류가 과학을 잘 응용하여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던 것이다.²⁸⁾

인류의 과학 응용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임은 <골드 소시알리즘의 유토피아, 유토피아 그 三>²⁹⁾이라는 글에서 다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일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 세상의 모든 것이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물건들로 변해버렸다는 역사적 가정 속에서 당시로부터 삼십년 후 “골드 소시알리즘(組合社會主義)”을 실현한 영국의 미래를 상상하고 있다. 템즈 강을 선회하는 “경편한 비행기”와 날렵한 자동차가 질서있게 운행하고 있는 런던은 과학기술로 구축된 미래 도시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전쟁 후 사람들은 공동 생활의 필요 또 하느님을 섬기는 정신 (...중략...) 전쟁에서 발휘하였던 용기를 돌려서 로동하는데 쓰게” 되었고 이러한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사회개조의 열심을 보이며 사회 개조의 조흔 방침을 생각하여 용감하고 총명하게 개조의 걸음을 걸어” 세계에서 자랑할만 한 영국을 만든 것은 로자협화(勞資協和)가 이룩한 업적을 강조한다.

28)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한국근대문학연구』 25, 2012. 440쪽 참고.

29) 『동광』 5호, 1926, 13-18쪽.

이같은 내용은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필연이라는 사회주의적 관점보다는 개량주의와 조합주의를 통해 새로운 유토피아를 이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경향의 잡지에 맞서서 안창호, 이광수를 주요 집필진으로 하여 민족주의 이념을 고취한 『동광』은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해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급진론보다는 과학과 예술의 진보, 개인의 개성과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진적 개혁안에 바탕을 둔 근대 문명을 유토피아로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광』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H. G. 웰즈의 유토피아론은 근대 과학기술과 더불어 등장한 유토피아 담론으로서 그 이전의 것과 구별된다. 비현실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던 유토피아가 실현가능성이라는 합리적 예견들과 관련을 맺게 되기 때문이다. 근대적 의미의 유토피아는 과학적 미래 예측에 기반하여 대중의 세계관을 바꿔놓았던 것이다.³⁰⁾

한편 근대와 전근대를 나누는 근본요소이자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를 가르는 분야가 과학이라고 믿었던 조선인에게 과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관심은 과학으로 상상하는 미래 세계를 주제로 한 과학소설과 희곡 작품으로도 확장되었다. 유토피아 담론이 『개벽』과 『동광』을 통해 소개되고 확산되던 1924-26년 사이에 근대유토피아론을 주장했던 웰즈의 과학소설 『타임머신』이 번역, 소개되었고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유토피아를 소개했던 박영희는 카렐 차פק의 희곡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Rossum's Universal Robots』을 『인조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조선에 소개하였다. 이 작품들은 과학의 진보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과학이 가져올 암울한 미래 세계에 대한 염려를 조선인들에게 보여주었다.

사실 과학소설에서 다루는 새로운 경험은 흥분이나 공포를 동반한 모험 여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특징이 있다. 현실의 시공간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은 과학의 발달이 가져다준 전망에 의존하기 마련인데, 과학소설에서 인물들이 도달하는 새로운 세계는 유토피아로 묘사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가 아니라 인류가 동경하는 사회로 제시되는 유토피아는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탈인간화를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과학의 발달이 인간 생명의 존엄성

30) 한민주, 앞의 글, 440쪽. 참고.

이나 인간 본질의 문제를 압박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라고 여겨진 미래의 세계는 불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토피아라고 여겨진 곳은 과학에 의해 인간성이 상실되거나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암울한 디스토피아일 가능성이 높다. 과학소설은 인류의 테크놀로지가 이룩한 세계를 디스토피아로 그려냄으로써 인류에게 경고를 주면서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적 물음을 던져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³¹⁾ 1920년대 조선에 소개된 웰즈의 『타임머신』을 번역한 『팔십만년 후의 사회』나 박영희가 번역한 『인조노동자』는 바로 유토피아를 꿈꾸는 미래의 과학세계가 사실은 인류가 겪게 될 인간 멸망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임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웰즈 원작 『팔십만년 후의 사회』는 고도의 테크놀로지로 발명된 “항시기”(타임머신)를 타고 80만년 후의 미래를 여행하는 과학소설로서 과학의 진보가 곧 유토피아의 도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스토피아의 미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이 세계에는 제조자가 업고 장사하는 사람이업는 뿐만 아니라 운반과 교통의 기관이 업다. 물론 수레가튼 것은 도모지 업다. 집은 잇스되 솟이 업고 불도 업다. 개나 고양이도 업고 소나 말도 업다. 공중으로 나는 새도 업다. 모든 동물이 다 업는 까닭에 전 세계는 완전히 인류뿐만이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인류는 노는 것 이외에는 아모것도 할 일이 업다. 괴로움과 걱정이 아조 업스니, 지력도 업고 완려도 업스며, 분발력도 업다. 혹은 이것이 참말로 황금세계라는 것이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또한 인류에게는 어린애도 잇고 어른도 잇스나 늙은이가 업섯다. 혹은 불로장생하는 나라에 왔는지 도모지 모른다.”³²⁾

앞서 2장에서 다루었던 1900년대 변안소설들에서 보여주었던 과학을 통

31) 이정옥,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 떠난 모험 여행의 서사」,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141쪽 참고.

32) 「세계적 명작 팔십만년후의 사회, 현대인의 미래사회를 여행하는 과학적 대발견」, 웰스원작, 영주번역. 『별건곤』 2호, 1926,12월.135쪽.

해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장수촌’과 같은 세계와 달리, 1920년대에 소개된 웰즈의 작품에서는 불로장생하기는 하지만 활력없는 암울한 미래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다. 『팔십만년 후의 사회』의 주인공 과학자는 발전된 미래의 기술을 관찰하고 미래의 인류로부터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전수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항시기”를 타고 도달한 80만 2701년후의 미래 세계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과 다른 세계였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되지 않고 미래인들은 무위도식의 삶에서 벗어날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인류가 퇴화한 것은 미래인의 삶에서 노동이 배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부각되는데 인간 노동력의 중요성을 이 소설은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노동 능력을 상실한 무력한 미래인의 모습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주인공 과학자를 통해 미래 사회의 노동의 상실의 문제가 웰즈의 『팔십만년 후의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³³⁾

한편 「중요술어사전」을 편집한 박영희 역시 미래 세계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1925년 박영희는 카렐 차펙의 희곡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Rossum's Universal Robots』을 『인조노동자』라는 제목으로 번역한다. 『인조노동자』는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는 희망에서 상상된 인조인간의 출현을 다루고 있다.

떠민 - 모든일이란 일은 다 살아있는 기계로 만듭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고민도 업서집니다. 또한 노동의 타락에서 해방을 어들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헤레나 - 인조인도 말씀입니까?

떠민 - 물론이지요. 지금은 할 수 업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만 되면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것이나 혹은 사람이 물질에게 굴복하는 일도 업시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울 일도 잇겠지만, 그것은 업지 할 수 업는 것이지요. 다만 그때만 되면 누구든지 생명과 미움의 대상으로 갱생하면서 땅을 어드려고는 안을터입니다. 인조인도 거지의 상태를 버서나서 자기집이서 편안히 살게도 될터이겠지요.

알끼스트 - 떠민, 떠민군! 자네는 꼭 낙원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러나 봉

33) 김종방, 「1920년대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 과정 연구-<80만년 후의 사회>와 <인조노동자>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44, 2012, 132쪽 참조.

사하는 일은 조흔 일이며 겸손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 아닌가? 노고와 피로에는 감시 잇슬터이지?

떠민 - 그것은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우리가 세계를 개조할 때에 일어버린 것을 또다시 생각해야 소용이 없네. 그때가 되면 사람은 자유로 되고 우월할 것이 될 것일세. 사람은 자기를 완성하는 것 외에는 아모 목적도 업고 아모 노고도 업고 아모 걱정도 업시 되네. 사람은 사람에게고 물질에게도 굴복하지도 안케 되네. 사람은 製産의 기계도 안이고 수단도 안인 것이 될것일세. 사람은 창조외의 신이 되단 말일세.³⁴⁾

인간의 손으로 탄생한 로봇이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내용이 담긴 『인조노동자』은 노동을 두고 벌이는 인간과 로봇의 갈등을 담고 있다. 주인공 “떠민”이 로봇을 생산하는 이유는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었다. 사람간의 예측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로봇의 대표인 라디우스는 로봇들을 선동하여 로섬의 유니버설 로봇사를 공격하고 인간들을 모두 살해한다. 로봇의 반란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인간문명은 사라지게 된다는 설정은 한편으로 노동력을 둘러싸고 벌이는 무산계급과 유산계급의 계급 갈등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³⁵⁾ 로봇은 아무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인류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할 뿐이고 로봇은 인간이 될 수 없는 운명 속에서 로봇들이 인간들과 투쟁을 벌여 승리를 쟁취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내용은 로봇을 무산 계급으로, 인류를 유산계급으로 이해한다면 노동자의 노동 해방을 향상화하는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웰즈의 『팔십만년후의 사회』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황금 세계의 미래를 꿈꾸었으나 노동의 상실이 인류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오히려 디스토피아일 뿐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인조노동자』도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인조인간을 만든 인류가 인조인간이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고 신과 같은 우월한 존재로 재탄생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파괴를 불러오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이 작품을 사회주의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미래 사회에

34) 채퍼크(작) 박영희(역), 「인조노동자」, 『개벽』 56호.1925년2월, 76-77쪽.

35) 김종방, 앞의 글, 136쪽 참고.

서 노동만 할 뿐인 로봇을 노동자로 보고 노동 해방의 사회주의적 유토피아를 구현하려는 의미로도 파악할 수 있다. 당시에 번역된 웰스의 소설이나 박영희가 번역한 카렐 차פק의 작품이 그려내는 디스토피아적 비전의 원형들은 이상향을 향한 비전의 반대급부로 형성된 것으로서 유토피아의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다. 인류에게 ‘노동’은 삶의 기본조건으로서 신성한 것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하고 신성한 노동을 행하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유토피아의 조건이 미래를 예견하는 문학작품에서 모색되고 있었던 것이다.

5. 결론

한국에서 ‘유토피아’의 개념은 20세기 초반 형성되었다. 유토피아가 문헌에 등장하기 전 『해저여행기담』이나 『철세계』와 같은 근대초기 변안 소설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없지만 좋은’ 세계는 과학을 이용해 찾아낼 수 있는 곳, 과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곳이었다. 여기에는 과학을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조선 지식인들의 근대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가 담겨 있었다.

유토피아가 소개되고 그 개념이 정착되는 데에는 1920년대 일본을 통해 소개된 개조론의 유입과정과 관련이 있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전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염원이 개조론의 유행 속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진보적 역사관에 기반한 사회주의 운동사가 활개를 치던 당시 조선의 독서 대중들에게 ‘유토피아’라는 개념은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서구 유럽의 사회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의 합목적적 과학성을 설명하는 데에 유토피아가 동원되면서 유토피아는 공상적 의미의 이상세계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현실 사회주의가 합목적적인 과학으로 실현된 이상세계라면 유토피아는 이러한 과학적 사회주의의 전사로서 실행할 수는 없으나 공상되었던 공산주의의 과거 사례로 규정된 것이다.

한편 『개벽』이 사회주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사회개혁적 맥락

에 집중하여 유토피아를 논의하였던 것과 다르게 『동광』에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극복하면서 세계적으로 실현가능한 유토피아론을 전개한 H. G. 웰즈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이루어진다. 『동광』은 사적 소유의 철폐를 통해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급진론보다는 과학과 예술의 진보, 개인의 개성과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점진적 개혁안에 바탕을 둔 근대 문명을 유토피아로 상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같은 시기에 과학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유토피아에 대한 관심은 과학으로 상상하는 미래 세계를 주제로 한 과학소설과 희곡 작품으로도 확장되었다. 웰즈의 『팔십만년 후의 사회』나 박영희가 번역한 『인조노동자』는 바로 유토피아를 꿈꾸는 미래의 과학세계가 사실은 인류가 겪게 될 인간 멸망의 암울한 디스토피아임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디스토피아적 비전의 원형들은 이상향을 향한 비전의 반대급부로 형성된 것으로서 유토피아의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이 작품들에서 주제로 제시되는 인간의 ‘노동’은 삶의 기본조건으로서 신성한 것이라는 인식에 이르게 하거나, 신성한 노동을 행하는 노동자의 해방이 유토피아의 조건으로 이해하려는 것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적 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교봉, 「『철세계』의 과학소설적 성격」,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 김종방, 「1920년대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 과정 연구-〈80만년 후의 사회〉와 〈인조노동자〉의 경우」, 『현대문학의 연구』 44, 2012.
- 김종욱, 「질베른 소설의 한국 수용과정 연구」, 『한국문학논총』 49집, 2008.
- 김지영, 『매혹의 근대, 일상의 모험』, 돌베개, 2016.
- 김창식, 「서양 과학소설의 국내 수용 과정에 대하여」,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 김형국, 「1919-1921년 한국 지식인들의 개조론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 대하여」, 『충남사학』 11, 1999.
- 나인호, 『개념사란 무엇인가』, 역사비평사, 2011.
-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자음과모음, 2011.
- 박근갑 외, 『개념사의 지평과 전망』, 소화, 2015.
- 이경우 외,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2012.
- 이상혁, 「근대 한국(조선)의 서양 외래어 유입과 그 역사적 맥락」, 『언어와 정보사회』 23, 2014.
- 이정욱,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로 떠난 모험 여행의 서사」,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2000.
- 이종은 외, 「한국문학에 나타난 유토피아 의식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28, 1996.
- 장노현, 「인종과 위생-〈철세계〉의 계몽의 논리에 대한 재고」, 『국제어문』 58, 2013.
- 한민주, 「인조인간의 출현과 근대SF문학의 테크노크라시」, 『한국근대문학연구』 25, 2012.
- 허혜정, 「논쟁적 대화: H. G. 웰즈의 근대유토피아론과 조선 사회주의의 문예 운동」, 『비평문학』 63, 2017.

❖ ABSTRACT

On "Utopia" Approached Through Conceptual History in Korea

Kim, Jongsoo

The concept of 'utopia' in Korea was form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re isn't in this world but good world' could be found using science and it was an ideal place for science to realize in the 1900s of Korea.

Utopia was emphasized as an ideal world of fantasy in the 1920s. It was an ideological world wherein socialism was realized by a purposeful science. Utopia, conversely, was the history of scientific socialism defined as past example of communism that could not be implemented but was fancied.

There were works suggesting that it was a dark dystopia such as *Society after 800,000 years* written by H.G. Wells or *Artificial Worker* by Young-hee Pak, but there were implied at the will of utopia.

Key Words : Utopia, Science, Socialism, Young-hee Pak, H.G. Wells

■ 논문접수일 : 2018. 08. 10

■ 심사완료일 : 2018. 08. 31

■ 게재확정일 : 2018. 09. 03

